

# 광주·전남 설 주요 범죄 줄어...음주운전 적발 급증

### 광주, 9대 범죄 16.8% 감소...전남 10.4% ↓

### 교통사고로 3명 사망...사고·부상자는 급감

### 음주운전 적발, 광주 50%·전남 26.5% 급증

설 명절 연휴동안 광주·전남에서 주요 범죄 발생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음주운전 적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경찰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범죄 및 5대 범죄·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9대 주요 범죄(살인·강도·납치·기절도·성폭력·납치·감금·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24건이었다. 지난해 설 149건에 비해 16.8% 감소했다.

특히 가정 폭력은 94건에서 70건으로 25.5% 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 5대 강력 범죄는 살인·강도 각 0건, 강간·추행 1건, 절도 18건, 폭력 18건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 범죄는 지난 설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설 대비 강간·추행은 절반으로 줄었고, 절도와 폭력도 각각 40%, 57.1%씩 급감했다.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47건에서 38건(19.5% 감소)으로 줄어들었다. 부상자도 지난 설 100명에서 52명으로 52% 줄었다. 하루 평균 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친 꼴이다.

다만 이번 설에는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다. 지난해 설엔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가 없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6명에서 54명으로 50% 증가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수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설에 비해 2배 늘었다.

운전면허 취소 수처에 해당하는 만

취 운전자도 38명으로 지난 설 28명 대비 35.7% 증가했다.

광주경찰은 강·절도 예방 진단, 가정폭력 범죄·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힘썼다.

특히 편의점·금은방 등 현금 취급 업소 1246곳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했고, 범죄 노출 확률이 높은 편의점 158곳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점포로 지정해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을 벌였다.

금융기관과 노인층을 상대로 전화 금융 사기 예방 홍보도 펼쳤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시간대에 경력을 배치했다.

명절 기간 중 가정 불화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제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하루 평균 교통경찰관 151명·장비 24대를 투입, 혼잡 도로 주변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

전남경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주요 범죄(살인·강도·절도·방화·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납치·감금 등) 신고가 10.4%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설에는 주요 범죄 신고가 661건 접수됐으나 이번 명절엔 592건으로 줄었다.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가정폭력은 313건에서 255건으로 18.5%가량 줄었다. 납치 감금 의심 신고도 4건에서 2건으로 50% 급감했다.

교통사고도 46건이 발생, 지난해 설 연휴 74건보다 37.8% 감소했다.

이번 설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사상자는 69명으로 지난 설 139명보다 50.4%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은 지난해 설 연휴 49건에서 이번 설엔 62건으로 26.5% 늘었다.

전남경찰은 편의점·금융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범죄 취약 지역을 합동 순찰했다.

연휴 전에는 가정폭력 제발 또는 아동 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을 밀착 관리했다. 소통 위주 교통 관리에 힘쓰고 위험·암체운전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범죄 예방·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 평온한 일상 생활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스티로폼 산’ 설 연휴가 끝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연순환센터에 포장용기로 사용 후 배출된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득 쌓여있다.

## 무등산 탐방로 6곳, 4월30일까지 입산통제 “산불예방”

###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등 9.2km



건조한 봄철을 앞두고 산불방지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입산을 통제한다.

총 6개 구간(9.2km)이다.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도원야영장~마담바위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이다.

통제구간 무단출입·흡연·취사행위·인화물질 소지가 금지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통제 탐방로 안내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불 발견 시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 ‘민식이법 잘 지켜지고 있나’... 광주시, 118곳 특정감사

### 다음달 1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실태 등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특정감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다.

감사는 시민감사관과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위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588곳 중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 최근 보호구역 변동 구간 등 118곳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교통안전 표지판, 보도와 차도의 분리 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 속도저감 장치설치 적정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 여



부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광주 1명이 156건·전남은 1명이 112건 담당’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은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이며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은 5개 중 2개 자치구에 7명이 배정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21.8명에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아동학

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총 1089건이 접수돼 전담공무원 1인당 156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10곳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453건으로 전담공무원 49.1명이 필요하지만 1인당 112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